

대입 정시 치열한 눈치싸움 전망...탐구가 변수

입시업계, 수시→정시 이월 줄 듯 '이과생의 문과 침공'도 감소

대학별 변환표준점수 꼼꼼히 따져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작년보다 많이 쉬웠던 만큼 정시모집전형에서의 눈치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어·수학·영어영역이 모두 평이해 만점자와 동점자가 많은 데다가 수시모집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이 감소해 정시 이월 인원이 줄 가능성이 커졌다.

사회탐구영역이 과학탐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만큼 이과생이 인문계 학과로 지원하는 '문과 침공'은 감소할 수 있다고 입시업계는 예측했다.

◇국어·수학 만점자 1000여명...상위권 경쟁 심화
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수능 표

준점수 최고점자(만점자)는 국어의 경우 1055명, 수학은 1522명에 달했다. 작년 수능보다 국어는 16.5배, 수학은 2.5배 늘어난 수치다.

영어영역에서 원점수 90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작년보다 1.51%포인트 오른 6.22%로 집계됐다. 인원수로는 2만8587명이다.

전 과목 만점자는 지난해 1명에서 올해 11명으로 늘었다. 만점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동점자도 많아 상위권 경쟁이 심화한다는 것을 뜻한다. 상위권 경쟁은 중·하위권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어, 수학 모두 작년보다 변별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의대 모집정원은 확대되면서 특히 최상위권에서 정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는 예년에 비해 국어, 수학의 표준점수 차이가 좁혀짐에 따라 치열한 눈치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수능 응시인원은 46만3486명으로 지난해 44만4870명보다 4.2% 늘었다. 이에 따라 1등급에 해당하는 인원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국어·수학·영어 1등급 인원이 늘면 수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수시 모집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이 감소한다.

남윤근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올해는 변별력이 약해져 주요 의대 및 서울대 등 최상위권 정시의 극심한 혼선이 예상된다"며 "이미 지원해 둔 수시 기회를 살리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수험생이 많아 결과적으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은 줄 수 있다"고 예측했다.

◇변환표준점수 관건...이과생 교차지원 '주춤' 전망

영역별로는 국어보다 수학이 변별력이 있고, 탐구영역이 당락을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입시업계는 봤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학 1등급을 받으려면 표준

점수가 131점이어야 하는데 최고점이 140점으로 1등급 안에서도 9점 차이가 난다.

작년(17점)보다는 차이가 줄었지만, 여전히 같은 수학 1등급을 받더라도 표준 점수 차이에 따라 당락이 바뀔 수 있다.

사회탐구는 9개 과목 중 6개에서, 과학탐구는 8개 과목 중 2개에서 지난해보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랐다. 특히 사회탐구 선택과목인 생활과 윤리는 77점으로 전체 탐구영역 선택과목 중 가장 높았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정시에서 탐구영역의 영향력이 높아질 수도 있다"며 "혼합 응시자(사회·과학탐구 선택영역을 1개씩 선택한 수험생) 증가 양상과 맞물려 정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탐구영역의 변환표준점수를 특히 더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변환표준점수는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줄이기 위해 대학이 자체 산출식을 마련해 적용하는 점수다.

이번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변환 표준점수에 반영 방법이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변환 표준점수 활용 대학 중 사탐/과탐 변환 표준점수를 별도로 적용해 과탐 점수가 높게 산출되는 대학에서는 사탐 응시자가, 공통 변환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에서는 과탐 응시자가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작년엔 과학탐구가 사회탐구보다 표준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높은 표준점수를 가지고 인문계 학과에 지원하는 이른바 '이과생의 문과 침공'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엔 사회탐구가 더 어렵게 나와 이런 현상은 주춤할 전망이다.

남 소장은 "올해는 사람의 표준점수가 높아짐에 따라 교차지원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상위권 대학의 경우 과탐 선택에 대한 가산점이 상위권 대학에 비해 크지 않아 사탐을 응시한 자연계 학생도 교차지원보다는 자연계 학과에 지원할 것"이라고 봤다. /연합뉴스

광주정신 계승...시교육청 민주주의역사누리터 설립 속도

대구교육박물관 선진지 탐방 전시 개발 방향 설정·콘텐츠 개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지난 7일 (가칭)광주광역시교육청민주주의역사누리터(이하 역사누리터) 설립 추진을 위한 '대구교육박물관 선진지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탐방은 역사누리터의 전시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전시 콘텐츠 개발 및 구체화,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추진됐다.

탐방에는 박철신 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추진단TF 12명이 참여했다. 특히 역사, 민주주의, 미술, 교육 분야 담당자들은 대구교육 박물관을 둘러 보며, 콘텐츠 개발 관련 의견을 논의했다.

(가칭)광주광역시교육청민주주의역사누리터는 오는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역사누리터가 조성되면 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을 광주교육의 흐름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학생 중심으로 민주주의 역사



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학생들의 민주주의 가치 이해와 민주시민 육성 등 효과가 기대된다.

실무추진단 한 위원은 "이번 탐방을 통해 광주의 민주주의 역사를 발굴하고 주요 사건과 인물을 소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교육 120년의 발자취와

학생 중심 민주주의 역사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며 "광주정신을 계승하는 민주주의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칭)광주광역시교육청민주주의역사누리터 조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 정성태 총장 등이 최근 베트남 '전남대-테이응웬 한국문화센터' 재운영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대 제공>

전남대-베트남 테이응웬 한국문화센터 재개

대학 교류활성화·국제협력 기대

전남대학교가 코로나19로 멈췄던 '전남대-테이응웬 한국문화센터'를 재개하며, 베트남 대학과의 국제협력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9일 전남대에 따르면 정성택 총장과 주요 보직자, 최희동 총동창회 수석상임부회장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최근 베트남 테이응웬대학교(Tay Nguyen University)에서 대학 관계자와 만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의 최대 성과는 지난 2017년 개관했다가 코로나19로 중단된 '전남대-테이응웬 한국문화센터'를 다시 열게 된 것이다.

방문단은 테이응웬대학 내 한국문화센터의 개소식에 참석해 기쁨을 나눴다. 해당 센터가 재개

되면서 베트남 현지 한국문화 확산을 주도하는 한편, 우수한 베트남 유학생을 유치에도 단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테이응웬대학교는 베트남 고원지대인 부앗마룻에 위치한 종합대학으로, 전남대학교와는 2007년 대학 단위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 특히, 12명의 전남대 동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3명의 부총장 중 2명이 전남대 동문일 만큼 전남대와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정성택 총장은 "팬데믹으로 잠시 멈췄던 전남대-테이응웬 한국문화센터가 다시 문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단순히 한국어를 교육하는 장소가 아닌, 양국의 문화가 자유롭게 교류하는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온라인학교' 내년 3월 1일 개교

전남교육청, 고교학점제 대비 소규모 학교 지원

전남교육청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 소규모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지원하는 전남온라인학교를 내년 3월 개교한다.

3월 1일 개교 예정인 전남온라인학교는 정규수업시간을 이용, 별도의 교실에서 개설 과목의 수업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쌍방향 진행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정규과목으로 편성, 운영되는 전남온라인학교는 50~60개 강좌에 소규모 학교 6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남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가 과목 개설의 어려움으로 고교학점제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전남온라인학교를 적극 운영,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소규모학교 지원을 위해 인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강사 인력풀과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온라인(81강좌, 1021명 참여), 오프라인(200강좌, 2627명 참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 지원하는 한편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공동교육과정인 '꿈키움캠퍼스' (44강좌, 636명 참여)도 운영 중이다.

이처럼 전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정은 "소규모학교 학생을 포함한 전남의 모든 학생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